

테마칼럼

-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공정한 사회와 교육이 나아갈 길



김왕복

“

공정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없다. 부자와 서민의 공정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공정의 기준이 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

”

대통령의 8·15 담화 이후 '공정한 사회'가 화두다. 집권 후반기 정책 이념이 발표되자 각 부처는 앞 다투어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예산안에 포함된 무상보육 지원 확대, 특성학교 학비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확충 등 3대 핵심과제이다.

리를 우선 적용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면 차등 조정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등 조정의 원리란 먼저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직위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개방하고 그다음 불평등이 존재하면 사회 임의이익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공정 기준이다.

형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의에 부합하다. 그런데 할당된 20%를 채우지 못하고 다른 학생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원인 분석과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오고칼럼



조영대

가을, 결혼시즌이다. 부부공동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어느 강의장에서 강사가 물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부인과 결혼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말했다. '난 지금의 부인과 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갑탄해 하는 데 강사가 물었다. '부럽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인이 싫다고 한다면 어쩌실지겠어요?' 그러자 남자가, "그럼... 고맙지요. 뭐~!" 다시 태어나면 같이 안 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에게 내리신 보물이란다! 결혼이란 사랑하는 남녀가 오묘한 섭리로 짝을 이루어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출산 및 교육으로 창조주의 창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참으로 숭고한 결약일진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아무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역행하여 너무 쉽게 헤어지고 너무 쉽게 갈라서서 부부들의 행태에 가슴이 저며 온다.

부부, 보물인가 원수인가?

는 '보물'과 같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부부님들, 서로를 보물처럼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이혼율이 50% 라는 것은 잘못된 통계일지라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높은 이혼율을 보면 우리나라 부부실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면, 결혼을 위한 기도는 세 번 해야 한다고 하듯이 가장 큰 모험과 고난의 세계로 출발하는 것이다. 결혼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헌신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혼이란 '원리'이기 전에 '의무'이고, '납입'이기 전에 '역할'이다. 결혼은 자기 행복에 앞서 상대의 행복을 우선에 두고, 그의 인격적 성장과 완성을 위해 가장 가까운 협력자가 되기로 서약하는 것이다. 창조주의 도구임을 빌며.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우제길

구 도청 주변에 위치한 총장로가 번성하여 호남 제일의 명소로 위력을 떨치던 무렵인 1990년 중반 대구시 관계자들은 광주시 동구 총장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방문했다. 어떤 문화적 위력인지, 깊은 감성들이 풍이지 않고 모여드는 총장로 길에 대한 감탄과 그에 대한 분석이 폭적이었다. 일제 강점기 1907년부터 광주 읍성을 헐기 시작한 후 8년 만에 읍성 중앙에 남은 길이나 늘의 총장로이다. 바로 남동에서 총장로까지 포함하여 광주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양림동 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100년이 넘도록 당시 선교사들의 활동 흔적을 담고 있는 양림산 선교사 묘역, 6·25전쟁 당시 전경호아들의 보육장소였던 우일선 선교사 사택, 1909년 순교한 선교사 오원기기념관, 네덜란드 건축 양식의 수표아고 홀 등 한국 교회 초기 유적들, 300~4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녹색의 장원 양림동은 가히 광주 근대 100년이 응축된 곳이다.

양림동의 생태와 근대화 어머니

양식 건물들과 함께 근대문화의 어머니(Amenity)를 형성하게 되었다. 1894년부터 광주를 찾은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과정에서 전해진 서양문화를 의한 광주의 근대적 변화는 남구 양림동 선교사 택에서 성 밖 부동다리(현재 불로동다리)를 지나 광주 읍성으로 이어진다.

높은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배려보다는 현대적 개발에만 속력을 내고 있는 듯 해 매우 안타깝다. 100여년의 숨결과 함께 자연의 섭리를 간직해 온 주변 생태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대성을 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문화 기반 형성이 과제 되어야 한다.

편식 심한 학생들에 전통음식 중요성 알려야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편식이 아주 심각하다. 반찬으로 김치나 나물이나 나오는 날에는 아예 손도 안대는 아이들이 아주 많다. 그와 반대로 햄이나 돈가스 등의 반찬이 나오는 날은 거의 남기지 않는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햄버거, 피자, 햄 등 인터넷 음식에 너무나 쉽게 길들여지고 있는 건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아이들의 편식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 전통음식의 중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이 주는 영양의 균형, 또한 탄질이나 김치 같은 음식이 중요한 질병을 예방한다는 걸 더 널리 알려 학생들이 우리 전통음식을 멀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대령동

시설

지방에 떠 넘긴 사회복지업무 정부가 맡아야

광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 2000년 기초생활수급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는 가정 해체, 실직, 빈곤 등에 따라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지역민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도는 인구 유출로 인해 수급자 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그 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 2005년 사회복지업무 자자체에 떠넘긴 것은 지방의 현실 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은 매년 크게 늘고 있으나 국비 보조는 오히려 줄어들어 수급자 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그 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계형 일자리 급감에 벼랑 끝에 선 서민

최근 6년 새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이 1만4000여 개가 감소하고 종업원 수도 4만여 명이 줄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 고용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창업 중소기업은 지난 2002년 3만7661개에서 2008년 2만3036개로 1만4625개가 줄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 역시 10만5839 명에서 6만5150명으로 4만 689명이 감소했다.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네 상권은 대기업이 독식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은 할 게 없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몰리는 바람에 공급과잉 상태인 게 현실이다. "해 먹고 살 게 없다"는 서민들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것이다.

無等鼓

미국 예일대 교수인 폴 케네디는 자신의 명저 '강대국의 흥망'에서 국력의 바탕을 영토와 인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는 국력의 상징인 군사력과 경제력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 수와 증가세가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국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미래부 박원순 장관은 '경제 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외치는 '친서민' 역시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더욱이 배추를 비롯한 채소값 등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는 서민 가계를 빈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인구 파워



를 슬프게 한다. 1960년 594만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520만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한데다 전국대비 비중도 23.8%에서 10.4%로 급감했다. 공멸화 가 호남인구 감소의 원인이라는데 이젠 녹색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점하는 것이 인구를 늘리는 해법이 아닐까. /정필수 사회복지사 bungy@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 柳濟喆 본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911간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문·영·태국어·베트남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광고미케팅 227-9600 독자서비스 2200-55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 대표 FAX 222-9500 >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팀 2200-571 기 획 사업 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전 시 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